

투데이

빈집서 홀로… 하루 한끼 무료급식에 의지 병든 가족과 철거예정지서 지내는 장애인

광주·전남 복지사각 460명 찾아 생계지원

김모(56)씨는 광주시 서구 양동 빙집에서 10년 넘게 혼자 산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켜지지 않는다.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한끼를 해결하고 두끼는 굽는다. 24년 전 이혼한 뒤 가족관계가 모두 단절돼 연락할 사람도 없지만 지금껏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인인 이모(여·33·목포시)씨는 철거를 앞둔 집에서 당뇨병이 심한 어머니, 허리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오빠, 어린 자녀와 생활하고 있다. 철거가 예정된 지역이라 밤에 혼자 다니기도 무섭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지만 현재 무료로 떨어쓰고 있는 집을 옮길만한 형편도 아니다. 오빠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탓에 이들 가족은 양육수당은 커녕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혜택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과정에서 발

견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십사가 진행중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복지사각지대 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일제조사를 벌여 시작 4일 만에 400여 명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정부가 전국 사회적 약자를 찾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여 1700여명의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낸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찾아낸 복지 소외자의 4분의 1이 넘는 수치다. 이 중 285명은 시·군 등 행정기관 직권조사를 통해 발견됐고 도민들의 신고로 발견된 경우가 61명, 54명은 본인 스스로 신고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이 164명으로 가장 많고 청·장년 119명, 아동 64명, 장애인 39명, 정신질환 의심자가 14명이다.

연령대 별로는 ▲70대 이상 69명

▲60대 88명 ▲50대 86명 ▲40대 69명

▲30대 18명 ▲20대 6명 ▲10대 23명 ▲아동(0~9세) 41명 등이다.

이들 상당수는 오래된 폐 가옥이나 여관·여인숙, 쪽방과 병원 주변 등에 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복지 혜택과 민간분야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149명은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60여명이 발굴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을 주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와 전남도 사회복지과(061-286-5730~5),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김지기자 dok2000@



축산위생사업소 강진에 새동지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지난 31일 강진군 착천면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23년간 광주 광산구 복룡동 시대를 마감했다. 2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 신청사는 60억원을 들여 1만5558㎡ 부지에 한옥 건물을 완공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공기관 한옥 건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운영된다. <전남도 제공>

“흑산홍어·낙지 잡지 마세요”

막걸리 열풍과 함께 귀하신 몸이 된 신안의 특산물인 흑산홍어와 갯벌 낙지를 당분간 맛볼 수 없게 됐다.

'세발낙지 주산지'인 신안군은 작년에 압해면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낙지 금어기록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금어기는 산란기인 2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2개월이다. 부드러운 식감 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갯벌 낙지가 지난해 포획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금어기를 확대하게 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흑산홍어잡이도 금어기로 설정된 1일부터 7월 15일까

지 중단되며, 이 기간 자원 회복과 생태 조사가 시행된다.

/서부취재본부=조완기자 wncho@

경매투자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준체)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 특별자금

주조회 기획서비스 • 100% 대출보증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평균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주기대대출 가능)
-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파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d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용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1g짜리 순금 돌반지 “반갑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월(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통해 1g짜리 순금 돌반지 제품의 전국 판매를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치솟은 금값을 감안하고 '돈' 대신 '그램(g)' 단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기표원은 2008년 g 단위 정착을 위해 2g, 3g, 4g짜리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금형 제작을 지원한 데 이

어 이번에 1g짜리 제작용 금형을 남녀 각 6세트를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함께 만들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인천에 보급했다.

금값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1돈(3.75g)의 돌반지 가격이 6년 전에 비해 약 4배 이상으로 올라 사설상 돌반지 선물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대응이다.

기표원은 "1g 제품은 6월부터 전국 2600여개 소매업소와 백화점 등에서 6만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침체된 돌반지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또 2g, 3g, 4g짜리 반지와 함께 '돈' 대신 g 단위 사용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표원은 귀금속 상품 거래 시 순도 함량 미달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귀금속 및 가공 상품'에 대한 KS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기표원은 "KS 표준은 치수,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순도 함량에 대한 허용도자 협의가 끝나는 대로 KS 표준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축銀 비자금’… 정관계 인사 줄소환키로

온진수 전 감사위원 구속…김종창 前금감원장 등 소환 임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000억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 간부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 의혹이 제기된 로비 대상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최근까지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무마와 뇌물 저지를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벌이면서, 로비자금의 재원(財源)을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운영해온 120개 SPC를 통해 조성한 수백억원대 비자금에

강도와 제재 수준을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온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 외에 금품을 수수한 금융당국과 정관계 인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검사 무마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 전 위원한테

서 직접 로비를 받았는지와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금감원 부원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구명 활동을 벌인 재경지검 차장 출신의 박종록(59·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도 곧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낮춰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자신과 친형 앞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긴급체포한 온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31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학원·PC방·음식점 시설 전체 ‘금연’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학원과 PC방, 음식점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동물사료 향생제 첨가 7월부터 전면금지

오는 7월 1일부터 동물 사료에 향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된다.

사용이 불허되는 향생제는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베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팔린실리레이트, 뱀바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등 8종이다.

중대형 아파트 30㎡ 이하 부분임대 허용

앞으로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임대 놓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지침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중대형 판매를 촉진해 미분양률을 줄이고,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에 1억달러 규모 전자정부 수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한·베트남 정보화협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을 전수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위원회에서 양측은 베트남 정보화센터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을 전수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원 모집

현대삼호중공업(주)의 협력업체입니다.

「작지만 강한회사」가 되고자 신규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비고
디자이너	0명	그래픽기술자 2급 이상	광주시 광산구 지역 및 목포시 하당인근 또는 무인군 거주자
자재관리	0명	운전면허 1종 엑셀기초	상동

◎ 근무방식

1. 오전 08:00~오후 05:30
2. 토요일 격주휴무 (오전근무)